

지역 소식통

김제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불안정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4개월분에 대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유종은 경유, 휘발유를 포함해 농업용 난방유(등유, 중유, LPG 등)다.

기준단가는 리터당 경유 149원, 휘발유 128원, 등유 154원, 중유 141원, LPG(난방) 84원, LPG(차량) 22원, 부생연료유(1호) 159원, 부생연료유(2호) 143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 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최대 1만리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유튜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치매안심가게 12곳 지정

완주군이 지역사회의 총출한 치매안심장 구축을 위해 약국, 미용실 등 12개소를 2024년 치매안심가게로 지정했다.

이번에 치매안심가게로 지정된 12개 업소의 모든 구성원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가게 내에는 치매 관련 리플릿을 비치해 치매안심가게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이 치매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치매안심가게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우수학습도시' 선정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서... 상위 10%이내 높은 점수 받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되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교육부 주관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 4년이 경과한 시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순환평가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시단위 64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2021~2023 기간동안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의 3개 영역, 10개 평가분야로 나누어 2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 대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평가 진행

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김제는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참여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학습도시 발전계획 수립, 모두배움터·평생학습 공유플랫폼 등 신규 평생학습시설 인프라 확충과 정보체계의 구축 등으로 학습자들의 교육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체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학습 제안제도, 학습참여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제, 장애인 학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학습경로로 주민의 학습참여 독려방안 적용과 함께 지역형 로컬-MOOC 학습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학습스튜디오 구축 등 디지털 학습기반조성으로 사업운영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대상 도시중 상위 10%이내의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된 김제시는 우수학습도시 통관 수여, 표창, 3주기 재지정평가 면제의 특전이 주어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우수학습도시 선정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이 일상화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고른 학습기회가 주어지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하이텍고, 재능기부로 완주군민에게 배움 기회 제공

완주군의회, '생활기술 교육' 개강식 참석... 총 5개 프로그램 무료 진행

완주군의회가 지난 27일 전북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 완주군민 생활기술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응원했다.

이번 개강식에는 군의회 의의장을 비롯해 김재천 부의장, 이순덕 운영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교육국장생 및 하이텍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이텍고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생활기술 교육은 완주군민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의 인적·물적 교육자산을 활용, 군민의 실생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으로는 △용접(일반, 특수) △드론조정 △전기기능사 △기계차 △굴착기 등 총 5개 과정으로, 오는 8월 25일(매주 토, 일/1일 4시간)까지 운영된다.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하이텍고는 2025학년도부터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으로, '수소융합과', '에너지융합과' 2개 학과를 신설하여 72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의의장 의장은 "이번 생활기술 교육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지역기반의 생

활밀착형 기술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취·창업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강화

먹거리위원회 개최... 제2차 먹거리종합계획 공유·방안 모색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30일 완주군은 최근 먹거리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완주군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완료된 제2차 완주먹거리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먹거리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먹거리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로 연중 먹거리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출하능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대표인 문순용 위원장은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농업에도 빠르게 영향을 끼쳐 연중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울토마토의 경우 수확 기간이 매년 짧아지고 있어 새로운 재배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호 위원장은 고산면에 위치한 청소년 방과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먹거리복지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연중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과 유통구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로 지역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행복콜택시 운행 개시

운행자 42명 새롭게 선정·내달 1일부터 운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8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공공형 택시(행복콜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22일까지 하반기 행복콜 택시 운행자를 새롭게 모집한 결과 42명을 선정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진봉면 부동, 금구면 연동, 사동마을 3곳을 추가해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58개 마을을 운행,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행복콜 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4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교통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다.

마을회관으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1,000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운행은 8월 1일부터 시작해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일요일을 제

외한 모든 요일(공휴일도 포함)에 운

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26일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줄 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조하며 행복콜 택시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최현주 교통행정과장은 "김제시는 교통 취약지역의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행노선 확대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복콜택시가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행자들은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콜 택시는 운행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운행자의 연락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063-540-3283)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9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용역을 추진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재정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완주군, 보통교부세 연구용역 추진 박차

유희태 군수 "재정력 강화 위해 추가 자원 절실"

완주군이 보통교부세 연구용역을 추진, 보통교부세 확보 총력에 나섰다. 지난 29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용역을 추진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재정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건전재정을 위한 각종 연구, 제도 개선,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통교부세 재원 배분 현황과 특징 등을 분석해 기존재정수요액, 세입세출 자체노력 산정 항목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자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올해 완주군 보통교부세는 2,791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